



옆에서 본 저자, 이남호

인생과 문학 사이,
문자와 영상 사이,
균형과 절제 사이,
지식에 매이지 않은 인문주의자

글 | 윤석달(한국항공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논형論衡》의 저자는 '예증편' 허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의 결점은 일을 논할 때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다. 글을 쓸 때도 진실된 상황을 과장해, 좋은 점은 지나치게 찬양하고 최악은 과대하게 비난한다." 그러므로 특히 경계하여야 할 것은 세간에 떠도는 것. 여러 차례 전해진 것, 소인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했다. 이는 대체로 진실과 떨어진 것들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자제국 쇠망약사》를 펴낸 저자는, '자화상'을 그려 문학지에 게재한 적이 있더니 이 그림을 스스로 잘 그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이 책의 모두머리에 싣고, 이렇게 썼다. "그의 왼쪽 머리 위에는 전자문화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전자벼락도 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 아래에는 문학이 적벽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다. 죽은 나무와 풍성한 나무도 한 그루씩 있고, 영어와 한문구절도 있다." 무슨 뜻일까? 제목이 '자화상'이니 거칠게 말하면 바로 '그'가 아닌가. 한때 무성했던 문학의 나무는 죽었고, 책 대신 영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마치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있는' 것처럼 생각

하여, 적벽의 강물 위에서 신선이 되고 있는 소동파와는 달리, 자못 좌초할까 두려워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가 맥루한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가까이 지냈으니, 헤아리면 서른 해쯤 된다. 대학과 군대를 마친 뒤, 내가 향리로 내려가 빛나는 국어교사 생활을 끝낼 적에 그는 막 학부를 마쳤다. 나는 늦깎이 대학원생으로, 그는 선배 무서운 줄 모르는 건방진 수재로, 대학원에서 만났다. 같은 시기, 같은 학교, 같은 선생, 같은 선배로부터 배웠으니 동문수학의 친구인 셈이다.

그렇지만 호형호제한다고 해서 10년의 나이가 가벼운가. 거기가 본래 면목의 성정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세상살이의 방법은 물론 감각과 취향까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친구로 지내기는 쉽지 않았을 터인데, 죽이 맞아 오랫동안 대방천지 함께 돌아다니기도 했고, 지금도 자주 이러저러한 모임에서 유쾌하게 만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취향이 같은 것도 몇 가지 있으니 주로 놀고, 먹고, 돌아다니는 것들이다. 여러 해 동안 오탁번 교수와 셋이서 낚시를 다

니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붓어를 잡고, 오 교수는 술을 잡았는데, 이 교수는 산천의 기운을 잡았는데.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서 몇몇 후배들과 설악의 공룡능선이나 지리의 여러 봉우리를 오르면서 경계를 즐기기도 하였다. 명색이 기독교신자인 나를 끌고 봉정암을 비롯한 적멸보궁이나 절집을 찾아 그는 내게 참배하는 법을 가르쳤고 밥때가 되면 절집의 공양을 함께 하기도 했다. 언젠가 당진의 술피성지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는 신부나 수녀들이 하는 자세로 합장하는 예를 보여주었다. 나는 절집에서도, 적멸의 성지에서도 그렇게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이 일 말고 잔챙이까지 더 적어보면 가끔 집근처에서 만나 술도 마시고, 더러는 내기 바둑을 두며, 모차르트와 비제의 음악도 듣고, 그보다 더 자주 쓸데없이 읽은 책 얘기도 한다. 가짓수로 따지고 보면 그것 말고도 또 있을테지만 그런 것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데는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은 전자시대인데, 그는 철저하게 아날로그적이다. 취향에서 그것들은 더욱 간명하게 드러나는데, 대체로 그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을 좋아한다. 남들은 한 가지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는데 그는 여러 방에서 고수高手의 솜씨를 갖고 있다.

낚시와 산행은 이미 말한 대로이고, 태극권에 입문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새벽의 침담샘에 올라 시연하는 행공자세는 이미 아름다운 한 경지를 보여준다. 테니스 또한 전국규모 대회에 자기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실력이며, 미술에 대한 안목과 애호가 대단해서 관화솜씨는 평판이 자자하고, 어떤 일인지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해마다 연말이면 그의 관화작품에 서명한 연하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영화에 대한 안목과 분별력 또한 고수의 수준이다. 그가 괜찮은 영화라고 해서 허겁지겁 나도 보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화는 영화사에서 막강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곤 했다.

또 하나는 그가 서양고전음악 마니아라는 사실이다. '마니아'는 요즘 '페인'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 중증의 중독증세를 갖고 있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의 중독은 생의 활성화탄 역할을 하는 듯싶다. 현재 그는 여러 번의 교체 끝에 마침내 탄노이 스피커를 장착한, 어지간히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동안 LP판을 구입하느라 매달 거금의 카드대금을 지불하기도 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요즘도 그의 직장동료이며 지극 정성의 벗이기도 한 김균 교수나, 김승현 교수와는 오디오를 매개로 자주 어울린다.

그는 또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는 누구못지 않게 '녹색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가 글로 써대는 세상살이에 관한 군말의 대부분도 '녹색'과 관련 있다. 그는 대개의 일에 사려깊고 냉철하지만 선후배들에게 웬만큼의 이런저런 배려를 하다가도 몰지각과 비이성의 장애와 부딪히면 성깔을 부리거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며 자포자기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문학과 학문에 대해서는 냉철한 지성과 따

뜻한 가슴의 양날을 버린 칼을 놓지 않고 있다. 제사보다 잣밥에 늘 관심이 많은 사람들, 시보다 세속적인 가치들에 더 관심이 많은 시인들을 경멸하며, '하면 된다'고 설치는 집념의 사나이들과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미워한다. 모차르트와 두보와 미당을 좋아하고, 봄날의 수초 돌아오르는 물가와 오래된 나무들을 좋아하고, 북한산을 사랑한다.

그의 이러한 '천석고황'은 기간행된 두 권의 산문집, 《느림보다 더 느린 빠름》과 《혼자만의 시간》에 오롯이 들어 있다. 요즘은 때와 장소만 그럴듯하다 싶으면, '임술지추칠월기망에 소자여객으로 범주유어적벽지하할새...'로 시작되는 소동파의 <적벽부>를 끝까지 외워 낭송하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해석하는 흥취가 도도하다. 따지고 보면 이 모두 그가 추구하는 삶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문학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니, 더 무엇을 말하랴. ☞



문.자.시.대.가 去 하고
전.자.시.대.가 來 하다...

